시크릿 가든

(막6:30~44)

35.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36.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37.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38.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39.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40. 떼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41.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42. 다 배불리 먹고
43.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44.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시크릿 가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아주 유명한 드라마의 제목이지요, '시크릿 가든'
보신 분들에게 한번 여쭈어 봅니다.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말이, 유럽에 가면 관광객이 사시사철 드나드는 그런 가든이 있는데, 그런 어떤 가든 중에서, 아주 미스터리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가든이 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가든 자체가 아예 숨겨져 있는 그래서 특별한 경로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의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드라마에서 제목을 지을 때에 내용과 무관하게 짓는 법은 없으니까 어떤 뜻이긴 하겠습니다마

는, 후자의 의미에서 가든 자체가 아예 통째로 숨겨져 있는 비밀의 가든, 비밀의 정원이 신앙인의 생활터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크릿 가든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아직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이 시크릿 가든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그럼 우리가 시크릿 가든을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을 동산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가든이에요, 가든.
그 가든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가든이 소멸된 게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에게서 가든이 감추어진 겁니다.
시크릿 가든이 돼 버린 거예요, 에덴동산이.

그런데 선민의 역사를 통하여 줄곧 이 시크릿 가든이 드러나는 힌트가 주어지고, 낌새가 주어지고 그리고 주님에게 와서 완전히 시크릿 가든이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크릿 가든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지마는, 그게 시크릿 가든으로 찾아가는 길이 확실하게 마련되었지마는, 아무나 그 가든을 접할 수 없어요.
마치 유럽의 베르사유 궁전처럼 관광객들 모두가 다 사시사철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가든이 아닙니다.
여전히 시크릿 가든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시크릿 가든이 어디 숨겨져 있습니까?
기쁨의 동산! 정말 부족함이 없고, 만족함만 주어지는 그 가든이 어디 숨겨져 있습니까?
광야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막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신앙의 비밀이 뭐냐 하면, 시크릿 가든, 비밀의 가든이 사라져 버린 에덴동산, 이 가든이 광야에 숨겨져 있다, 사막에 숨겨져 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비밀을 체득하고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아직 신앙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5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뿐만 아닙니다.
35장에 보면은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왜 구약성경부터 성경은 끊임없이 사막을 고집할까요? 왜 광야를 고집할까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신 곳이 광야였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한적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한적한 곳이라는 게 딴 뜻이 아니라, 광야.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광야에 시크릿 가든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오병이어의 이 기적사건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헌신을 했다, 자기가 먹을 것을 헌신함을 통하여, 그 어린아이의 헌신이 남자만 오천 명, 여자와 아이까지 다 합치면 이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나머지를 열두 광주리를 걷고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자, 교회에 봉사 충성하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마가의 내용이 흘러가는 문맥을 따져보면, 지금 마가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온 천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온 천국에.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전대를 갖지 말고 배낭을 메지 말고 두벌 옷을 갖지 말고 두벌 여분의 신발을 갖지 말라'
이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전도한다는 것은 가까이 온 천국을 전도하는 것인데, 너희 스스로가 가까이 온 천국이 어디까지 가까이 왔고 어디에 있는지, 천국의 로케이션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이 어디 있으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너희가 전도해

야 될 천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너희 지갑보다 돈이 들어가 있는 전대보다, 필수품 생필품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 배낭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가까이 있는 천국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인의 죽음, 단순히 종교적인 신념이 부딪쳐서 신념의 갈등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이 간악하고 간교한 감정놀음, 헤롯의 이 부패한 정치가의 권력놀음에 의해서 희생이 된 이 비참한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몸보다도 가까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누릴 걸 다~ 누린 뒤에 이 몸이 가야 될 인생의 행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 들여라, 그것이 설사 세례요한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의인의 죽음의 모습으로 나타날 지라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사건이 뜻하는 의미가 건축되어져 가는 두개의 기둥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둥이 바로 35절과 36절에 있다는 거예요,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두개의 기둥이 뭐겠습니까? '이곳은 빈들이니…'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마을과 촌에 들어가서 사먹게 하옵소서.'
빈들과 마을과 촌이 두개의 기둥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두개의 기둥이 될 까요?
여러분, 사람이 양식을 먹으려면 마을과 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당연한 생각입니다.
광야에서는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모든 생명현상이 끊어진 곳이 광야입니다.
모든 삶의 활동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삶이 죽어버린 장소가 광야에요.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배고프면 빨리 빠져 나와서 마을과 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본 것이 있어요.
이 광야에 바로 시크릿 가든이 숨겨져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사야서의 말대로,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고, 그리고 사막이 변하여 샘이 되고 원천이 된다'고 하는, 이 사막 속에 숨겨져 있는 동산을, 가든을 제자들은 몰랐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배고픈 자는 마을과 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배고픈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들어가서 양식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42절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다~ 보냈습니다.
배부른 자들이 이 촌과 마을로 들어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갈 때 배가 불러서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사업장에 갈 때,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살아야지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돈 많이 벌어서 만족한 상태, 그 사업장에 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배가 불러서 사업장에 간다는 얘기에요.
가정에서 결혼해 가지고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면서, 자식 잘 키워서 내가 마음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해야지, 배불러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 촌과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가정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애인과 만나야 될 장소가 있고, 친구와 만나는 관계가 가능한 그런 마을과 촌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미 광야에서 배가 불러버렸다는 거예요.
친구로 인해서 만족할 배가, 애인으로 인해서 만족할 배가, 배우자로 인해서 만족할 배가, 광야에서 불러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광야에 가든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만족함을 허락할 수 있는 가든이 숨겨져 있어요.

자! 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부른 상태, 여기서 오병이어의 떡과 생선을 먹는 것과 집에서 떡과 생선을 먹는 거, 그 기쁨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똑같은 떡과 생선이라도 집에서 먹는 것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맨 날 이런 것만 먹어야 되느냐?'
맛은 똑같은 것일지라도 재료가 똑같을지라도, 그 광야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먹게 되는 이 떡은 배만 부른 게 아니에요.
배부른 건 저리 가라에요.
배부른 건 둘째 문제고, 진짜는 마음이 부른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 사실을 보고 아직 천국을 바라보는 표적으로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만족이라는 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광야에 숨겨진 에덴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광야인데 배부른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치 에덴동산에서 기쁨으로 가득 배불러서 기쁨의 동산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러한 배부름이 생깁니까?
마음의 배부름, 육신의 배부름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먼저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말씀드린 대로 삶의 모든 Activity가 중단된 곳이에요.
삶의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벌려고 할 수도 없고, 모으려고 할 수도 없고, 높아질 수도 없고, 광야가 삶이란.

모~든 삶의 활동이 중단되어지고 삶을 향한 뜻과 의지가 중단되어지고, 삶을 향한 전적인 인간의 인격이, 전인성이 다 죽어버린 상태가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살아 있잖아요, 아직도.
그 살아있는 뜻 살아있는 의지, 살아 있는 마음의 관심이 다 어디로 쏠립니까?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가지로 가르치신 이 내용이 뭡니까?
가까이 온 천국, 천국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를 가르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막에서 삶은 죽었습니다.
삶이 죽은 상태에서 이들이 삶의 현장에 있었다면, 투여돼야만 했던 의지, 뜻, 마음 이게 다 어디로 쏟아집니까?
오직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가르침에 집중되어져 있고 천국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집중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농사지을 생각도 안하고, 사업할 생각 안하고, 밥 지을 생각도 안하고, 아이들 교육시킬 생각도 안하고 모~든 삶에 대한 생각이 중단되고 예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이 상황, 장소는 빈들입니다.
이곳에 숨겨져 있던 에덴이 드러납니다.
이만 명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삶이 죽어버린 광야에서, 삶에 쏟아 부어야 할 모든 마음과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는 그 현장에서 숨겨져 있던 에덴을 드러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에덴, 마음과 몸의 배부름이 있는 그 에덴은 바로 그곳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비밀입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만족함을 위해서, 배부름을 위해서 촌과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진짜 배부를 수 있는 에덴이, 배부를 수 있는 정원이 광야에 숨겨져 있다는 걸 몰라요.
삶이 이루어지는 촌과 마을과는 정반대로 삶이 죽어버린, 광야에 나의 진정한 배부름이 가능한 정원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몰라요 교회도, 이제는.

나의 시크릿 가든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럼 나의 시크릿 가든을 찾아낼까요?
시크릿 가든은 광야에 숨겨져 있어요.

광야 사막에 숨겨져 있으면 모하비 사막으로 가야 됩니까, 고비사막으로 짐 싸들고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사막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막이 뭐라고요? 생명현상이 끝난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할 때, 세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삶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내 시크릿 가든은 광야에 숨겨져 있는데 어떻게 찾아 들어가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삶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사막이 뭐냐?
삶이 죽어버린 장소이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돈 문제 걱정되고 자식문제 내 건강문제 걱정될 때에,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 될 수 있는 모든 것,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상관없이, 모~든 생각이 일어날 때, 걱정 근심 계획 의욕이 일어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는 순간에 나의 마음이 먼저 광야로 진입하게 됩니다.
왜? 삶이 죽은 자리니까…

광야로 진입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에 진입하게 되면, 내가 죽은 건 아니에요.
내 삶이 죽은 거지 내가 죽은 건 아닙니다.
살아 있는 내가 관심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과 천국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까.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뭔가는 관심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삶이 죽을 때에.
돈 걱정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땐 돈밖에 못 봐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러나 삶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죽고 돈 문제가 있어도, 돈 문제에 대해 죽어버리고 더 이상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mistake 하지 않아요.

이럴 때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광야에 숨겨져 있는 에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서 배부르게 됩니다.
마음의 배가 부르면서 그 마음의 배가 부른 상태에서 촌과 마을로 보내어 집니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촌과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배부를 양식을 찾는 게 아니라, 만족함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십자가 붙잡고 들어간 광야 속에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시크릿 가든을 발견하고, 그 광야에서 샘이 넘치고 꽃이 피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뒤에라야, 내 삶의 현장인 마을과 촌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친구에게로 다~ 보내어져 살게끔 된다는 얘기에요.
그럴 때 비로소 마을과 촌에 내가 이렇게 미스하지 않은 천국을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오늘 36절에 보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뭐가 차이가 납니까?
제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촌으로 들어가서 양식을 구하도록 합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촌으로 들어가서 천국을 전합니다.
왜?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늘 시크릿 가든에서 만족을 얻으신 뒤에야 사람이 사는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miss 하지 않은 천국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시크릿 가든이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그 광야로 들어가는 길은, 삶이 죽은 장소로 들어가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의 시크릿 가든을 찾아내고 배부르시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동안 정말 골동품이 되어버리듯 뽀얗게 먼지가 쌓인 듯이 숨겨져 있는 나의 시크릿 가든을 이제는 일상적으로 찾아내어 생활화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시크릿 가든이 숨겨져 있는 광야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광야에 샘이 터지고, 그 광야에 강이 흐르고, 그 광야에 백합꽃이 만발하는 기적 같은 배부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